

# 군산-서천 상생발전 본격

###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내년 11월까지 지역연계 협력사업 발굴·중앙부처 공동 건의 등 추진

금강하구를 기반으로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착수되며 군산과 서천의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군산시는 서천군(군수 노박래)과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금강하구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본격적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서천군과 군산시가 공동 투자에 진행되며, 올 4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총 20개월에 걸쳐 추진된다.

금강하구를 기반으로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착수되며 군산과 서천의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해 6월 열린 '2019년 제1차 군산·서천 행정협의회'.

특히 금강의 역사, 문화관광, 생태, 항만 어업 산업 도시재생 등 각 분야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토대로 지역연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하는 방식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대성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군산시와 서천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단순한 교류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확고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는 최근 유희숙 부시장을 주재로 강태순 경제관광국장,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 '익산역' 중심 청년문화 형성

### 익산시, 어울림센터 활용·청숲 연계 등 관광자원화 모색

익산시가 지역의 가장 큰 경쟁력인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유희숙 부시장을 주재로 강태순 경제관광국장,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익산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보면 옛 하노바 호텔에 조성 중인 창업 및 사회적경제 어울림센터를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를 청숲과 연계하는 방안 도시경관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이다. 이를 토대로 각 부서는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시민들 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익산역을 중심으로 250억원이 투입돼 도시경관 개선과 청년 창업공간,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거리에는 아트센터와 근대역사관, 청숲 등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공간인 청숲에서 취업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 문화 콘텐츠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익산시는 연찬회를 정례화해 익산역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숙 부시장은 "KTX 익산역은 지역의 가장 큰 경쟁력이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계기로 익산역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김충영 익산시의원 "미흡한 정책 개선 시급"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익산 나산거구)이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짚어보고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공공요금지원·다이어움카드 혜택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정책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원활하지 못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400여명에 달하는 F5 영주권자인 화교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일부도 이미 예



산소진이 되었거나 불합리한 지원 조건으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선공무원이 각종 비상근무와 기존 업무추진으로 인한 과부하로 피로도가 심한 상황이므로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와 사기진작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대, 파란사다리 사업 신규 주관대학 선정

군산대학교(총장 곡병선)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파란사다리 사업' 신규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으로는 전국에서 전문대학 4개교, 일반대학 2개교가 선정되었다. 파란사다리사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 등 해외 진로탐색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인식 및 직업 관련 지식 확장을 도모하고, 취업 전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대학교에서는 총 80명의 학생을 선발해 2021년 1월 중에 미국 25명, 캐나다 25명, 중국 15명, 일본 15명 등 4주 동안의 해외어학연수, 문화체험, 기업체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4억2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군산=김관근 기자

###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익산시 긴급지원 접수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택시 및 화물업계(택배 제외) 운수종사자에게 오는 25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택시 운수종사자 1,504명과 화물 운수종사자 3,123명 등 총 4,627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지원 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촉진시킬 방침이다.

시는 화물종사자들의 신청 수렴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는 공설운동장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집중기간에 접수하지 못했던 운수종사자들은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해야 한다.

한편,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신청기간 내 동시에 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선도농가에 벼 무인자율주행 이앙 첫 시도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농업 시대에 맞는 무인자율주행 이앙기를 활용한 모내기를 지역에서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날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지역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일원 권철오 선도농가 논에서 무인자율주행 이앙 시연회가 개최됐다. 시연회는 무인자율주행 이앙기를 개발한 대농공업 농기계 전문가의 시범교육과 안전한 조종방법, 이

앙 시 주의사항 등의 소개로 자율주행 이앙기의 편리함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번에 선보인 자율주행 직진형 이앙기(대농농기계 DRP60)는 이앙을 시작할 때 최초 1회 직진 자동 레버를 조작해 간편하게 직진 자동 구간을 등록하면 해당 구간 내에서 이앙기가 자동 직진해 작업자는 별다른 조작 없이 모를 심을 수 있는 제품이다.

기존에 모판 운반자 1인과 이앙기 운전자 1인, 2인 1조로 이루어지던 이앙기 조종을 무인자율주행 이앙기는

운전자만 최소 운전을 하면서 모판을 운반할 수 있어 1인 이앙 작업이 가능함으로써 보조 작업자 확보의 어려움을 덜고 인건비 등의 영농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날 무인자율 이앙기를 직접 시운전한 권철오(54)씨는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제품 쌀 심리행(전북10호)을 드문드문 심기로 평당 50주씩 이앙했다"며 "육묘도 절약하고 무인자율주행 이앙으로 혼자서 편리하게 모내기를 마쳤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익산체인' 선정

익산시는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주)익산체인(대표 구자원)을 선정하고 21일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했다. (주)익산체인은 2015년 설립되어 2016년 주얼리 연구개발 센터 업무협약, 2017년 익산시 투자협약·여성친화인증기업선정, 2019년 기업부설 연

구소 설립·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및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각종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홍콩국제보석전시회 및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참가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 지난해 매출 25억원을 달성한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인재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인준업체에 대해 개발장려금(시제품개발비), 각종 매체 홍보, 카탈로그 게재 홍보 리플릿 제작 등을 지원한다.

(주)익산체인 구자원 대표는 "앞으로 우수한 제품 개발 및 전국적 유통망을 개척하여 보석도시 익산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